

#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

- 젠더의 관점으로 5·18소설 읽기

이 경\*

## 차 례

1. 머리말
2. 정찬의 『광야』 - 당신들의 역사
3. 임철우의 『봄날』 - 비체의 귀환
4. 홍희담의 『깃발』 - 인간에 대한 예의
5. 공선옥 - 우울증의 윤리와 힘
6. 맺음말

본 논문은 비체와 우울증이론을 원용하여 5·18소설을 해석함으로써 여성주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5·18소설은 미적 형상화와 증언의 소명의식이라는 상반된 노선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에 관한 한 양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5·18소설의 계보에서 여성은 누락되거나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소설 속의 여성인물은 국가권력의 무력한 피해자이거나 피해자 남성을 반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여 본 연구는 젠더의 관점에 착안하여 피해자화와 타자화로 고착된 여성의 의미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비체*abject*와 우울증*melancholia* 이론은 권력/

---

\* 진주국제대 교양학부 교수

타자, 능동/수동, 남/녀의 간극을 가로지르는 여성주체의 역할을 설명하는 좋은 준거가 된다. 우울증이 상실한 대상을 합체하여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비체는 주체/대상의 경계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경계에 대한 의심과 부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통한다.

비체의 귀환과 우울증의 윤리는 여성들로 하여금 주체의 잠재력을 획득하게 한다. 비체와 우울증을 통과함으로써, 타자가 주체를 바꾸어낼 수 있는 능동적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18소설의 경우 비체와 우울증의 양상은 젠더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남성인물들이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봄날』, 『광야』는 불멸하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인물들이 초점화자로 부각되는 『피어라 수선화』, 『시절들』, 『깃발』 등은 소멸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

정찬의 『광야』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체를 남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을 비가시화시키는 젠더맹목을 노출시키고, 임철우의 『봄날』은 여성인물이 그 수습을 담당하는 비체로서의 시체를 부각시킴으로써 늘 피해자였던 여성이 치유의 주체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죽음에 파먹힌 삶, 타자를 합체한 우울은 흥희담의 『깃발』이 지니는 힘이 된다. 소설은 대상의 상실과 합체에서 실천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념적 수준에서나마 나름의 희망을 확보한다.

공선옥의 소설은 이러한 우울증을 윤리와 만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간다. 애도와 전이로 5·18이 역사화되는 국면의 바깥에서 애도되지 못한 잉여들을 끌어안는 우울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이를 통해 슬픔의 위계화를 조장하고 이전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애도의 정치에 저항하며 현재를 승인하지 않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다.

핵심어 : 5·18소설, 비체, 비체화, 비체되기, 우울증, 우울증주체, 슬픔의 위계화, 애도, 살아있는 죽음, 여성의 비가시화

## 1. 머리말

5·18민주화운동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은 소설들(이하 ‘5·18소설’이라 함)은 미적 형상화와 증언의 소명의식이라는 두 축 사이를 왕복하며 소설에 대한 평가와 해석 또한 이 스펙트럼 안에 위치한다. 알레고리와 환상성을 통해 금기의 시대에 접근하기도 하며, 역사의 복원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기록물에 근사한 서사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상반되는 노선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에 관한 한, 양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성에서 출발하는 5·18소설의 계보에서 여성은 누락되거나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가권력과 광주, 계엄군과 시민군, 투항파와 항쟁파 등으로 분할되는 대립의 목록에서 주체로 확립되는 성은 대개 남성이며 여성의 역할은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다. 소설 속의 여성인물은 피해자라는 대표단수 아래 괄호 처리되거나 축소와 한정적 형식으로 타자화된다. 여성은 역사의 무력한 피해자이거나 피해자 남성을 반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해의 대상이거나 피해의 거울이거나 간에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주체로 부각시키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이 주축이 된 가해/피해, 가해/저항의 구도 속에서 여성은 늘 이들의 조력자 혹은 반사하는 거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여 이 연구는 5·18소설의 계보에 누락된 젠더의 관점에서 출발한다.<sup>1)</sup> 야만적 국가권력과의 대결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엄연한 젠더의

---

1) 실제 5·18소설로 묶을 수 있는 소설은 그리 많지는 않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삶/죽음의 대립을 통해 성차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되는 소설 작품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소설은 다음과 같다. 임철우, 『봄날』, 문학과지성사, 1998; 정찬, 『광야』, 문이당, 2002; 홍희담, 『깃발』, 창작과비평사, 2003; 공선옥,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비평사, 1994. 장편과 단편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소 무리한 기획이라 생각되었지만, 젠더의식의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기

분할에 착안하여, 능동/수동, 가해/피해의 대립을 가능하게 하는 경계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피해자화와 타자화로 고착된 여성의 의미를 넘어서고자 한다.

비체*abject*와 우울증*melancholia* 이론은 이 간극을 가로지르는 여성 주체의 역할을 설명하는 좋은 준거가 된다. 경계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통한다. 우울증이 상실한 대상을 합체하여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비체는 주체/대상의 경계를 위협하는 존재이다. 양자는 모두 주체/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힘인 것이다.

크리스테바는 메리 더글라스의 비체 개념을 정신 심리학적으로 동원하여 이론화한다. 사회는 청결한 몸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체를 생산하지만, 이는 체제와 질서에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서구문화는 비체의 전형적 특질을 점액질로 규정한다. 가부장적 상징질서는 여성적인 것과 등치되는 점액질에 온갖 우의적인 의미와 서사를 첨가한다. 몸의 젠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액질은 여성성에 대한 공포로 재현된다. 크리스테바는 비체를 통해 모성이 주체/객체, 안/밖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힘임을 밝혀낸다. 콧물, 오줌, 똥 등의 체액들 모두는 안에서 밖으로 떠밀려나간 것이다. 의식으로 통제 불가능한 체액은 주체의 한계를 시사하며 의식의 우월성을 전복시킨다. 이처럼 낯설고 기괴한 비체는 존재의 폭력적이고 두려운 저항이며 경계의 위반을 상징한다.<sup>2)</sup>

---

에 더불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4~25쪽; 고갑희, 『시적 혁명과 경계선의 철학-줄리아 크리스테바』, 『페미니즘』,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민음사, 2000, 212~214쪽; 성미라, 『매저키즘』,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여이연, 2003, 92~94쪽; 임옥희, 『비체들의 유머』, 『다락방에서 타자를 만나다』, 여성문화이론연구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여이연, 2005, 305~309쪽. 크리스테바 이후 비체는 사회적 비체, 국가적 비체 등의 사례에서 보듯

5·18 소설에서 압도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폭력에 의해 훼손된 육체와 정신이다. 뇌수가 빠져나온 머리, 내장이 터져나온 배, 끊임없이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육체 등은 주체의 경계ego-boundary를 교란시킨다. 주체의 경계를 향한 이 가차 없는 근본 질문 앞에서 모든 경계는 교란된다. 그 이전까지 비존재로 존재했던 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자리에 있기를 거부할 때 그들을 비체로 만든 권력은 비로소 그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울증 또한 5·18의 상실과 피해를 자원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설명될 수 있다. 『자아와 이드』에서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증을 구분하던 초기의 입장을 수정하여 자아의 구성 자체가 우울증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자이는 사랑대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결코 완벽한 애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애착대상과 단절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실한 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합체된다. 다시 말해 사랑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은 자기 동일시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이렇게 파악한다면 자아의 성격은 사랑했지만 상실한 대상들이 동일시에 의해서 자아 안에 가라앉은 슬픔의 침전물이자 그것의 고고학적인 잔해다. 자아는 잃어버린 타자를 자기 안에 유령으로 합체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아가 곧 상실한 타자라는 역설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욕망과 동일시의 경계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내가 욕망해 왔던 것, 그러므로 나에게서 부재한 것이 곧 나가 된다는 역설적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sup>4)</sup> 이처럼 우리는 상실을 통해 형성되는

---

이 경계의 오염을 골자로 한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3) 프로이트,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프로이트, 윤희기 외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345f쪽.

4)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05~111쪽; 조현순, 『애도와 우울증』,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56~73쪽. 크리스테버는 『검은 태양』에서 용어상으로 는 우울증depression과 멜랑콜리melancholia를 구분하지만, 사실상 크게 차이를 두

자아의 취약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 타자의 불모로서의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나르시즘에 빠진 주체철학에서 애도를 통한 타자의 윤리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체의 귀환과 우울증의 윤리는 여성들로 하여금 주체의 잠재력을 획득하게 한다. 비체와 우울증을 통과함으로써, 현실적 대립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자가 주체를 바꾸어낼 수 있는 능동적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체계와 질서가 그 내부에서부터 동요하게끔 함으로써 여성인물은 역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잊지 말라는 것이야 말로 그들이 지상에 영원히 새기고 싶었던 언어”라는 전언을 실천하는 능동적 힘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18소설의 경우 비체와 우울증의 양상은 젠더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남성인물들이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봄날』, 『광야』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인물들이 초점화자로 부각되는 『피어라 수선화』, 『시절들』, 『깃발』 등은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sup>5)</sup>

우선, 죽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

고 있지는 않다.

5) 물론 앞의 두 소설은 5·18의 현장에 충실한 것이고, 뒤의 소설들은 이후의 일상을 그린 것이기에 죽음과 삶으로 초점이 분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자는 모두 일정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씌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씌어진 시기는 오히려 여성작가의 소설들이 더 5·18 당시에 가깝다), 소설이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의 차이는 명확해진다.

## 2. 정찬의 『광야』-당신들의 역사

『광야』의 대부분은 죽음과 죽임에 할애된다. 이 죽음은 늘 진행되어 오던 죽임의 결과로 제시된다. 하지만 죽음의 배면에는 삶과 사랑이 과일의 씨처럼 박혀 있다. 살기 위한 죽음이라는 역설이 소설의 요체를 이룬다. 바로 그 때문에 5·18은 불멸한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존재를 확산시키는 불가사의한’ 연대를 완성하는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쳤던 것은 스스로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 우리 모두는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해방』, 218>

그들이 총을 든 것은 패배하기 위함이었고, 침몰하는 해방 광주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 <『광야』, 315>

『광야』는 해방광주 혹은 광주공동체의 출현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죽음으로부터 삶을 회복하려는 생명의 필연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느린 죽음’ ‘늘 진행되어온 학살’은 광주에 가해진 자본과 권력의 폭력을 의미한다.<sup>6)</sup> 잉여가치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살해의 ‘느린 속도’와 권력이 구사하는 ‘학살은 없다’는 거짓에 마취되어 있을 뿐 이미 죽음은 광주의 문 앞에 당도해 있었다는 것이다.

소설은 이 죽음의 자장으로부터의 도주가 해방광주의 실체인 것으로 파악한다. 광주항쟁에서 군인들이 결정적으로 무력해진 지점 또한 바로 여기다. 짐승의 시간, 살해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힘의 폭발 앞에서 군대가 무력화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여기서의 죽음은 죽음

6) 안혜련은 이를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 기본모순과 주요모순을 첨예하게 현실화시킨 사건이라 규정한다.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양상 연구』, 5·18 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제1호, 2003, 262쪽.

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획득한다. ‘한 죽음이 모두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오랜 맹목을 깨뜨린 이 항쟁의 바탕 위에서 이후의 정신사적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소설은 말한다. 87년의 민주화항쟁과 이후의 변혁운동가들의 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이러한 죽음에 있다는 것이다.

시민군인 박태민과 계엄군인 강선우를 대표단수로 하여 소설은 광주와 국가권력의 대결을 제시한다. 이 두 사람이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것은 양 힘의 충돌과 접합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박태민은 시위를 주도하고 강선우는 특전사의 임무에 충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대립에서 동일시로 이행한다. 소설의 상당부분은 두 사람의 친연관계에 할애된다.

바로 이 때문에 소설에서 여성은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젠더의 관점으로 정찬의 소설을 일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시민군/계엄군의 대립과 그에 대한 객관적 보고가 모두 남성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기에 여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남성들에 의해 유발된 갈등과 투쟁은 서사의 긴장을 유발하며 그 해소는 여성들로 교체되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광야』의 경우 긴장의 유발과 해소는 모두가 남성들에 의해서 완결된다

그와 청년을 두 몸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일체감이었다. <『광야』, 47-8>

몸과 몸의 격렬한 부딪힘과 대검이 살 속으로 파고들 때의 황홀한 일체감, 혼의 그 뜨거운 간음은 누구에 의해서도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광야』, 69-70>

그때 난 기이한 체험을 했다. (……) 나는 청년의 몸이 되어 총탄이 박히는 순간의 감각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광야』, 192>



시민군과 계엄군은 각기 입장에 충실하여 대립되지만 동시에 깊은 일치감을 공유하는 관계이며 이는 관계의 전이로 이어진다. 계엄군 강선우가 파란 옷으로 표현되는 청년의 몸에 칼을 대는 순간 양자는 피해자/가해자에 배치되는 동시에 강한 동일시의 관계로 설정된다. 경련이라는 피해자의 반응을 가해자도 동시에 체험한다. ‘살인자’가 곧 ‘살해당하는 자’가 되는 것도 이런 이치에서이다.

동일시 혹은 감정의 전이는 박태민/강선우의 관계에서 절정을 이룬다. 시민군/계엄군이라는 엄연한 배치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 대열에서 이탈한 강선우와 박태민은 서로에게 강하게 견인된다. ‘격렬한 떨림, 황홀한 일체감, 혼의 뜨거운 간음, 꿈 속에 함께 있다는 느낌’으로 표현되는 강렬한 동일시는 소설의 전 대립관계를 일관한다. 박태민과 강선우의 연대와 동일시는 절대권력이라는 전제로 인해 가능하다. 절대권력 앞에서의 대립은 하찮은 것이기에 양자는 서로에게 강하게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적의 분할까지도 뛰어 넘는 동성사회의 연대는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에서 출발하여 삶과 사랑에 이르는 이 역설의 궤적에서 비가시화되고 배제되는 것은 여성이다. 남성주체와 대상의 대결에서 여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립과 동일시의 주체는 모두 남성이며 이들의 대립을 기술하는 외국인 기자 또한 남성이다.

사랑이든 증오든 또 중립적 시각이든 모두가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동성의 폐쇄회로에 유일하게 진입이 허락된 존재는 어머니이다. 여자들은 ‘어머니’의 의장을 통해서만 등장한다. 시민들에게 밥을 해 주거나, 어머니로서 죽거나, 어머니로서 슬퍼하거나 할 뿐이다. 어머니가 아니거나 어머니의 순결한 자식으로 등록되지 못한 세상의 모든 타자들은 입장이 거부되는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시위대 차량을 멈추게 한 후 주먹밥을 한 함지씩 실었다. (……) 그런 모습들이 도시의 한쪽을 축제와도 흡사한 분위기로 채색하고 있었다. 간혹 웃음소리가 들렸고, 때때로 낭랑한 노래까지 흘러나왔다. <『광야』, 87>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인의 몸은 성모의 몸이었다. <『광야』, 270>

죽은 여인의 몸속에 죄의 티끌조차 없는 순결한 생명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날카로운 고통이었다. <『광야』, 271>

죽임과 죽음의 현장에 여성의 입장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자격으로서이다. 버틀러의 말처럼 애도에도 급수가 있다.<sup>7)</sup> 권력이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의 죽음은 되풀이해서 호명된다. 애도의 전략은 정치적 국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요청된다. 생명을 잉태한 몸, 어머니의 죽음만이 애도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임신부의 죽음은 생명을 짓밟는 야만적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죽음이 되는 것이다. 자식의 죽음에 대하여 애곡하는 어머니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인류가 자식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면 역사가 이토록 피의 자국으로 점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소설의 단언이 이를 잘 설명한다. 모성을 통과한 여성만이 역사의 현장에 입장이 허락된다. 순결한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로서 죽거나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 입장으로만 현장에 등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쟁의 외중에도 공/사의 영역은 엄연하다. 죽음으로써 삶을 도모하고 죽임으로써 사랑을 완성하는 남성동성사회의 숭엄한 연대 바깥에서 여성인물들은 밥을 지어주거나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성들은 광장에, 여성들은 부엌에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근처 길가에서 술을 걸고 밥을 짓는 것은 광장에 나오는

7)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2004, pp.20~24.

한 방식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광주라는 현장특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 특수한 현장에서도 싸움의 영역과 취사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기에, 성분할은 그대로 선명한 셈이다. 밥을 짓거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또한 어머니의 역할로 사회화된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라는 역사적 장소에는 오직 어머니만이 배석해 있는 셈이다.

『광야』는 5·18민주화운동을 “오래 진행되어 오던 느린 학살”에 대한 살림의 운동,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난 각성의 운동으로 파악하는 탁월한 인식을 드러냈지만, 그 주체를 남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을 비가시화시키는 젠더맹목을 드러내고 있다.

### 3. 임철우의 『봄날』 - 비체의 귀환

임철우의 『봄날』 역시 광주를 죽음을 통해 지켜낸 해방공동체로 파악함으로써 죽음을 통한 더 큰 삶에 초점을 맞춘다. 이미 죽었거나 최후까지 도청에 남아 저항을 완성한 자에게 소설의 추는 기울어져 있다.

이제 도청은 결국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된 셈입니다.  
(……) 저는, 끝까지 여기 남겠습니다. <『봄날』 제5권, 391>

해서, 소설은 광주의 역사화에 회의를 표한다. 유언비어와 전설에서 출발하여 국회청문회를 거쳐 역사로 정착되는 5·18의 역사화에는 보상과 함께 청산의 의미도 포함된다. 작가는 추모, 화해, 용서로 광주를 청산하기보다는 늘 5월 속에서 살아가고자 한다. 서문에서 밝힌 바처럼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 얼룩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소설

은 당시의 충실한 기록문을 지향한다. 그 충실한 복원 속에서 피의 궤적은 불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의 기록물인 만큼 『봄날』은 대결구도 안에서 시종하지만, 여기서 대립구도 또한 정찬의 소설처럼 본질적인 것이기보다는 배치의 문제로 제시된다. 애초의 어떤 각본에 따라 광주항쟁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팔십만의 시민들, 병사들, 그들 모두가 포획당한 물고기. 결코 적도 원수도 아니었다. <『봄날』 제5권, 178>

소설의 일차적인 대립구도는 계엄군과 시민군이지만 계엄군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만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립구도는 국가권력과 광주시민인 썸이다. 계엄군이 국가권력의 소모품 자격으로 피해자의 목록에 추가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광주항쟁을 구성하는 시민군/계엄군의 대립이 단지 배치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의 뚜렷한 방증이다.

하지만 배치의 문제라는 것이 계엄군/시민군의 엄연한 대립을 무화시키지는 않는다. 소모품이라는 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계엄군이 폭력의 직접적 주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시민군/계엄군의 관계는 정찬의 소설에서처럼 황홀한 일치로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설은 계엄군/시민군의 동일성보다는 형제와 동료 그리고 친구를 갈라놓는 대립구도를 더욱 부각시킨다. 절대권력 앞에서 도구화된 싸움이라 할지라도 저항에 끝까지 충실한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한원구의 배다른 세 아들, 무석, 명치, 명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5·18 당시를 서술한다. 형제를 쫓기는 자/쫓는 자, 시민군/계엄군으로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야만적 국가권력의

고발에서 출발한 만큼 소설은 도식화된 대립구도와 계몽의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비체를 매개로 할 때 소설은 ‘민족과 민중의 역사적 투신’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난다. 동시에 남성 중심의 거대서사라는 획일화<sup>8)</sup>에서도 일탈할 수 있게 된다.

“오마, 이, 이것이 뭇이다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딸의 머리를 받쳐들려 했을 때, 손이 머릿속으로 쑥 들어갔다. 뒷머리에서 뭔가 피고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 그제서야, 보리밥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딸의 뇌에서 쏟아져나온 뇌수라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았다. <『봄날』 제4권, 92>

“야! 사람 몸뚱이에서 무슨 물이 그렇게 끝없이 쏟아져나오다나? 비닐로 관을 몇 겹씩 싸놓았어도, 어느새 팔죽 삶은 물 같은 것이 틈새로 줄줄 흘러나오는디, 위메, 징허드라 징해!” <『봄날』 제5권, 76>

얼핏 청년의 앞부분이 이상했다. 허리에서부터 차체 바닥까지 질척하니 쏟아져아와 있는 끈적하고 희끄무레한 덩어리들…… 그것이 청년의 뱃속에서 나온 내장이라는 것을 금순은 깨달았다. <『봄날』 제5권, 104>

형제를 적으로 배치하고 동족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권력의 폭력과 그에 맞서는 민중의 저항이라는 대립구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싸움으로 피폐된 인간의 육신이다. 소설에서 생동하는 것은 바로 부서지는 육체이다. 이 점에서 소설의 진정한 주체는 죽음인 셈이다. 피와 물, 내장과 뇌수의 노출이야말로 살아서 펄펄 뛰는 서사의 생동하는 진정한 주체다. 시민군의 저항과 계엄군의 진압을 배경으로 오직 비체화된 육체만이 살아서 움직인다. 죽음이 스스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을 소설은 탁월하게 떠내고 있는 것이다.

8) 안혜련, 앞의 글, 263~264쪽.

비체를 매개로 여성인물들은 주체화의 궤적을 그린다. 5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늘 피해자였던 여성인물들은 오월의 열흘간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얻게 된다. 여기서도 여성은 피해자로 정체화되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한다. 피해자에서 주체로 이동함으로써 패배, 슬픔, 죄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5·18 이후의 피해 양상은 어머니 혹은 소녀의 경우로 대표될 수 있다. 여성 피해자가 역사에 등록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순결한 소녀의 죽음이거나 모성을 통한 죽음에의 접근이다. 순결한 소녀이거나 혹은 정찬의 소설처럼 어머니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역사적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순결한 광주의 딸 혹은 어머니가 애도의 정치를 구사하는 동력인 셈이다. 특히 순결한 소녀의 죽음은 권력의 폭력을 강하게 고발한다. 권력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기제로 오 도미니카라는 소녀의 죽음이 부각된다. 순결한 소녀의 죽음은 전시민적 애도의 대상으로 자리가 동한다.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목록에 이제 소녀가 등재된 것이다.

이 점에서 임철우 소설은 한계를 드러낸다. 남성인물은 남자, 청년, 고등학생 등으로 제시되는데 비해, 여성인물은 순결하고 가녀린 소녀, 처녀 그리고 어머니로 정체화된다. 베틀콩은 내장, ‘뽕까이’는 가슴을 부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인물들은 피해자라는 역할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주체로 일어선다. 이 때 피해자와 주체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비체이다. 이는 특히 여성인물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매개로 작용한다. 이제 순결한 소녀이거나 어머니의 자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로의 진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비체들을 생산한다. 제도과 이기적인 주체는 자기 안의 타자를 비체로 만든다. 타자화된 비체는 공손하게 그런 폭력에 순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비체로 만들고 있는 주체의 공포

를 조롱하면서 모욕을 가한다. 오염과 불결은 그 자체의 속성이기보다는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은 어떤 것의 속성이기에 비체에 대해 부여되는 공포와 불결의 속성은 비체의 본질이기보다 주체가 자기공포를 투사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시체는 모든 것을 침범하는 경계로서 애브젝션의 극한을 이룬다.<sup>10)</sup> 자아와 비자아 사이의 비체는 모든 경계를 위반한다. 소설에서 제시되는 찢긴 육체, 시취, 흐르는 피와 내장은 인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정상과 체계와 질서의 경계를 흔들어 놓는다. 시민과 폭도, 충성과 동원, 군인과 역적, 친구와 적의 경계 해체는 결국 권력 그 자체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삶에서 죽음으로 직진하는 순간을 목격한 후의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이기를 그만두고 스스로 능동성을 획득한다. 겁쟁이인 연숙, 소극적인 성격의 미순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맡는다. 과장에게 버림받아 그의 아이를 유산한 후 술집색시로 또 ‘똥치’로 한없이 추락하던 은숙 역시 죽음을 거두고 상처를 치유하는 주체로 이동한다. 청결한 소녀가 시체를 염하는 일을 하게 되고 몸을 팔던 여자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주체로 자리잡으며 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 남성중심주의의 죽임과 파괴의 구도를 살림과 포용의 구조로 바꾸어내는 대안적 여성성의 현현<sup>11)</sup>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비체를 통해 주체라는 중심을 허물어내는 여성들의 실력행사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인물들이 죽거나 나쁘거나의 전투를 전전하는 동안 여

9)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307~309쪽.

10) Julia Kristeva, *Power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p.3~4: 박주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여성의 몸-시각, 쟁점,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편, 창작과비평사, 2005, 83쪽에서 재인용.

11) 안혜련, 앞의 글, 276쪽.

성인물들은 권력의 경계를 응시한다. 권력은 죽음을 통해 경계를 만든다, 비체는 그 경계의 해체를 통해 권력을 전복시키는 매개가 된다. 비체를 통한 여성인물들의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힘을 획득한다. 비체를 통해 여성인물은 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한다.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비체를 매개로 5·18의 야만성은 그 전모를 드러낸다. 여성들의 시선을 통해 비체를 생산해내는 권력의 얼굴이 노출된다. 권력은 스스로를 정화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내부의 타자를 외부로 밀어낸다. 권력은 광주를 비체화했고 그 비체화의 극단적 형태가 시체이다. 권력은 비체화를 통해 정결한 외관을 유지하려 했으나, 권력이 토해 놓은 시체는 다시 귀환하여 권력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오염시킨다. 피, 물, 내장, 뇌수 등의 점액질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귀환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즉 ‘나는 방금까지 너였어’라는 말은 ‘방금까지 나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었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바로 이런 식으로 비체는 국가권력의 경계를 심문한다.

바로 그 비체를 다루면서, 즉 능동적 비체-되기를 통해 여성인물들은 주체화된다. 이미 사회적 비체의 성격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여성인물들이 시체를 수습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적 비체-되기를 실천할 때, 이들은 역사적 주체로 자리이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권력의 얼굴은 폭로되고 만다. 비체는 국가, 법, 질서와 그 속에서의 안락을 악몽으로 만들면서 귀환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인물들은 광주를 역사화하는 또 다른 주체로 자리매김 된다. 비체 자체가 움직이는 개념이기에 비체는 작중인물들을 피해의 대상에서 역사의 주체<sup>12)</sup>로 이동시키

12) 여기서 여성인물들이 담당하는 시체를 수습하는 역할은 돌봄이라는 모성적 가치와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점에서 임철우의 소설은 성역할분담의 체계에 대한 공손한 순응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치유는 아픈 자를 돌보아서 낮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수습한다는 의미, 정확하게는 주검의 치유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권력이 비체화시킨 죽음을 수습하면서 여성인물들은 권력이 금



는 유효한 매개로 작용하는 것이다.

임철우의 『봄날』은 5·18의 역사화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도 되짚고자 했으며 비체를 매개로 여성들이 주체화되는 과정을 떠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의식의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 5월 이전에도 이후에도 늘 피해자였던 여성이 치유의 주체로 이동함으로써 역사화되는 궤적을 비체를 통해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여성인물들은 시체의 수습을 통해 죽은 자를 애도하지만, 동시에 비체로서의 시체는 자아의 경계를 허물어내기에 자아의 상실과 합체로 이행될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소설은 여기서 멈춘다. 이러한 상실의 기억과 주체성의 회복이 향후의 일상을 어떻게 구사하는가는 서사의 영역 밖이다. 홍희담과 공선옥 소설은 바로 이러한 삶에 초점을 맞춘다. 상실의 기억을 합체한 주체가 일상을 구사하는 방식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 4. 홍희담의 『깃발』 - 인간에 대한 예의

홍희담의 『깃발』은 야만적 권력에 맞섰던 5·18의 기억과 그로 인한 우울을 여성의 시선으로 서술한다. 여성인물들은 스스로를 상실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며, 바로 이 결여가 소설의 윤리를 일정 정도 담보한다. 홍희담의 작중인물들은 5·18 당시를 좋은 세상으로 기억하며 죽음과 죄의식 속에서 현재를 살아간다. 그들은 처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 본 날들로 당시를 기억한다. 그해 오월은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임을 깨닫게 했던 날들이고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 있던 시간인 것이다. 그들

---

지한 존재를 끌어안는다. 이는 권력이 삭제한 얼굴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오빠의 주검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아버지(크레온)의 법에 대한 저항이 되는 안티고네의 경우처럼, 주검을 수습하는 치유는 저항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이 충을 일상의 물건처럼 따뜻하게 느꼈던 것도 이 때문이며 그해 오월의 날들을 식구들과 둘러앉아 밥 먹던 기억과 동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때는 밥을 먹어도 먹어도 밥숟갈만 내려놓고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팠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겨우 한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데도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안심이 되고 좋아요.” <「깃발」, 53>

작중인물들에게 5월은 목숨과 맞바꾼 삶의 진정성과 공동체의 기억 이기에 그것을 잃어버린 지금의 일상을 곁태로 파악한다. 피의 기억을 봉합한 지금의 일상이 비현실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신문에서나 인권단체, 종교단체, 어디에서나 화해라는 말이 많이 떠돌았다. (……) 그녀들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었다. <「깃발」, 60>

“(……) 모두들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일종의 당근이잖아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86>

정부는 신고와 보상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권고하지만 5·18 당사자들에게 세월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들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망월묘역은 성역화되고 오월항쟁은 역사화되지만 이러한 제도화에는 봉합의 의미도 포함된다. 대개 여성인 작중인물들이 피해자신고, 배상문제에 비협조적인 것도 이 때문이며 나아가 그 제도화된 ‘역사’에 적의를 품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 화해와 용서에서 진실을 가리려는 음모를 읽으며 배상금을 당근으로 파악한다. 피해자보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분할 또한 역사화에 대한 회의를 가속화한다. 애도되는 죽음/애도되지 못한 죽음, 부상하는 죽음/은폐되는 죽음, 신고/신고의 거부, 배상금의 수혜자/비수혜자로의 분할

은 동시에 분열의 조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몇 줄의 요약문으로 항쟁 당시를 정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간결한 몇 줄로 요약되는 신고의 양상은 저 어둠 속에서의 피와 절규를 은폐·엄폐할 수밖에 없기에 역사라는 말에 적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소설은 감옥에서 병원으로 전전하는 인물들에게 주목한다. 소설은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과 병, 그리고 강박을 다룬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미치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그해 오월과 함께 살아간다. 일상과 행복을 경계하면서 말이다.

영빈은 시골 중학교에 발령이 났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영빈은 설렘도 없이 집에서 중매해준 남자와 결혼했다. 이제 그들은 음악을 듣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았다.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형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98-9>

차라리 세상이 모두 망월묘역과 정신병동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99>

“형 기억은 80년 5월에 끝나 있어요.”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104>

형철의 뇌수함몰증, 혜자 남편의 뇌손상, 수희의 조울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과 함께 하는 것이 소설 속 인물들이 살아가고 죽어가는 방식이다. 일상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느라 질병의 표식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대부분의 인물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 우울은 죽은 자, 떠난 자를 합체한 데 기인한다.

앞의 소설에서처럼 홍희담의 여성인물 역시 피해자의 위치에 배치되나, 가해의 얼굴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며 우울증의 윤리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앞의 소설과 구분된다.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하의 경우는 이를 잘 드러낸다. 인하는 일차적으로 가족에 의해 다음으로 자본과 국가에 의해 최종적으로 운동가인 연인에 의해 피해자가 된다. 사

랑과 운동은 함께 시작되고 성숙되며 국가 그리고 자본의 탄압과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인과 아버지, 그리고 자본과 국가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데 공조한 셈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그 사랑을 막는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자본과 국가는 모두 가해의 연대를 이루는 것이다.

물론 소설은 인하의 우울까지만 제시할 뿐 그녀가 주체로 자리잡는 모습까지를 제시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연쇄되는 가해의 시슬은 인하의 주체성을 일정 정도 담보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랑 가족 국가라는 공모 체계가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체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영빈은 일상 속에 우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그녀의 우울은 보다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아픈 자, 떠난 자, 죽은 자를 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에 합체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5·18의 꿈과 그 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기억을 이들은 차마 애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광주유령을 껴안고 놓지 않는다. 5·18의 기억과 사촌오빠인 형철과 친구인 영빈의 꿈과 상실 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교사자격증을 반납함으로써 정규직의 안정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수연과 혜자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우울증 주체melancholic agent 들이다.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자기에게로 되돌아옴으로써 <검은 태양> 속에서 살아간다. 살아있음 자체가 이미 부끄러움 비겁 최악이었기에 작중인물은 행복하지 않는 삶을 굳이 선택한다. 이는 사랑하는 연인을 버리고 정규직이라는 안정을 거부하며 5·18 베이비인 자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기처벌로 드러난다.

홍노인의 5월은 그 때 이후 계속된 것이었다. 광한이로 말하면 먹고사  
노라고 이따금 홍비호를 잊기도 했다. 그러나 무의식의 끝간 데까지 따라  
오는 저 처참한 죽음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 홍비호의 죽음  
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 <『이제금 저달이』  
228>

비록 죽음에 그 삶을 다 파먹혔을지라도 작중인물은 오늘의 삶을 기  
획한다. 죽음에 파먹힌 삶, 타자를 합체한 우울이 그 기획의 바탕을 이  
룬다. 『이제금 저달이』에서 광한의 삶은 우울증이라는 윤리가 어떻게 역  
사적 실천으로 나아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는 홍비호를 합체해서 살  
고 있기에 온전한 삶을 박탈당한 생존이나 바로 이러한 결여야말로 실  
천의 바탕을 이룬다. ‘그의 죽음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  
해진다’는 광한의 독백은 이를 증명한다. 작업복 자락의 펄럭임이 수많  
은 깃발의 펄럭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우울이 홍희담의 『깃발』이 지니는 힘이라 하겠다.  
소설은 대상의 상실과 합체에서 실천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선  
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확보하지만, 동시에 당위와 관념의 우세로  
인해 현실성과 구체성을 상실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우울증의 윤리가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공선옥소설이  
등장할 때까지 유보된다. 상실과 우울은 깊되, 회복과 희망은 불투명한  
공선옥 소설은 바로 그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실  
의 모든 장애를 고려한 가능성이기에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힘을 획득  
할 수 있는 것이다.

## 5. 공선옥 - 우울증의 윤리와 힘

공선옥의 소설 역시 오월의 기억 속에서 시종한다. 살아남은 자의 죄 의식과 부끄러움 속에서 과거는 생생하게 살아 있다. 이들에게 ‘그 해 오월’은 과거시체가 되었지만, 그것은 늘 현재를 파고드는 과거이다. 과거가 현재를 잠식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 해 5월을 진정으로 살아 있던 시간인 동시에 그 삶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시절들로 기억한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여기를 오 히려 낯설고 기이하게 바라본다.

“내가 총을 들지 않으면 꼼짝없이 내가 죽게 생겨서요. 형은 왜 잡았지요?” “나도 마찬가지지. 살고 싶어서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씨앗불』, 269>

“이무튼 난 참 좋아요, 요 며칠간의 광주가.” “사람 사는 거 같지?” “맞아요, 죽은 사람만 없다면.” <『씨앗불』, 300>

총을 잡으면서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 작중인물들은 싸우는 것이 곧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깨닫는다. 고아이자 잡급직 일용노동자로서 살아온 날들보다 총을 매개로 한 싸움의 연대를 훨씬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해서 이들은 그해 오월을 팔호 속에 묶고 있는 현재를 낯설어 하며 6공의 보상대책을 그 근처에서부터 불신한다.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보상대책에는 봉합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5·18에 대한 기억과 보상대책에 대한 태도는 홍희담 소설과 극히 유사하지만 보상의 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저돌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무엇보다, 보상하는 주체의 입장과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 처벌의 대상이어야 하는 살인자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모순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 위에서 이루어진 보상이기에 보상은 거부

와 부정의 대상으로 부각된다. 보상은 아내의 도주와 남편의 자살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시절들』에서는 보상의 의미가 다소 완화되어서 드러나지만 이혼위자료나 헛된 고시공부, 약혼자의 죽음 등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상타! <『시절들』, 185>

“(……) 지 마누라는 돈 몇푼에 좋아 죽겠다만 지는 속이 꼭 썩어문드러졌듯갑더라. 술은 술대로 들어가고 속은 속대로 썩어가고 (……)” <『씨앗불』, 280>

“(……) 오일팔 때 몸 병들어, 뭘 생활보조금이란가 뭘가 뻘시 맘 병들어 다 죽겠다 다 죽어.” <『씨앗불』, 280>

‘(……)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된 처지에 살인자 처벌은커녕 살인자가 권력을 차지한 작금에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 <『씨앗불』, 31>

그해 오월은 몸을 병들게 하고 생활보조금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당시의 폭력의 주체가 권력을 차지한 6공 시절에 이루어진 보상정책은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을 배가하여 질병과 자살의 원인이 된다. 보상의 수락은 당시의 폭력을 추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마음의 병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6공의 보상대책은 일상의 파탄과 죽음에 이르는 병의 원천이 된 것이다.

작중인물들은 현재를 훼손된 상태 혹은 그것을 감추는 가면으로 파악한다. 작중인물은 모두 5월에 발목 잡혀 있다. 살아남았으나 죽은 자에 대한 죄의식과 상실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공선옥은 이 우울증을 윤리와 만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간다. 그해 오월의 기억을 여성의 시선으로 서술하며, 또 상실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는

점에서 흥희담과 유사하다. 하지만 공선옥은 이 우울증을 윤리와 만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가며 여기서 나아가 그 윤리를 실천하는 능동적 잠재력을 드러낸다.

위준은 날마다 제 몸을 화형식하였다. <「씨앗불」, 264>

“(……) 마누라는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 죽어본 영택이 하준이들이니 형제 친척이라도 되나고. (……)” <「목숨」, 146>

바람 부는 벌판을 휘돌다 끝내는 갈 곳 없는 원혼들이 그의 움막 안으로 기어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면 그는 구천을 헤매다 잠시 그의 집에 들른 그 망자들과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신다고 했다. <「씨앗불」, 290>

아내는 모를 것이었다. 그의 가슴속에 이제는 곳을 해도 나가지 않을 귀신을 묻을 사실을. 기석이, 상준이, 효남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소년. 그들의 넋이, 아내가 말하는 오일팔 귀신들이 이제는 영영 그의 가슴 한복판에 씨앗불로 남아 이글대고 있음을, 그 씨앗불의 힘으로 그가 살아갈 것임을 아내는 모를 것이었다. <「씨앗불」, 318>

5·18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유례없는 죄의식과 우울에 시달린다. 살아남은 자신에 대한 죄의식과 죽은 자와 잃어버린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상실감, 죄의식 없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작중인물들이 겪는 우울증의 내용이다. 이중 압도적인 것은 상실로 인한 우울증이다.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으로 이들은 자신을 처벌한다. 대상상실이 자아상실로 전환되기에 우울증환자는 스스로를 처벌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화형식’을 집행하는 「씨앗불」의 위준은 이를 잘 설명한다. 기정미, 미스 조, 그녀의 애인 등의 자살과 죽음은 이러한 화형식이 상징에서 현실로 전환된 것이다.

동시에 우울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환상에 도전하는 행위가 됨으로써 윤리적 의미를 확보한다. 상실의 고통이야말로 타자에게 볼모 잡



혀 있는 스스로의 자아를 인식하고 정의하며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나라는 주체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실의 경험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타자에 불모잡힌 우리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율적 자아라는 환상을 걷고 타자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로 나아갈 수 있다.<sup>13)</sup>

애도되지 못한 잉여들에 대한 작중인물의 태도는 우울증의 윤리를 잘 드러낸다. 성과 이름이 없는 고아, 일가 친척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 끝내 갈 곳을 못 찾는 원혼들은 신고와 애도의 그물망 바깥에서 유랑한다. 공선옥 소설의 인물들은 상실을 애도하는 대신 내부에 간직한다. 이는 애도가 불가능한 상실이다. 상실한 대상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작중인물들은 5·18이 역사화됨으로써 생성된 모든 잉여들을 기꺼이 끌어안는다. 역사 귀신, 5·18유령 등은 모두 이런 자아의 구성방식을 대표한다. 작중인물들은 제도화와 역사화에 포획되지 않는 상실의 잉여를 합체한다. 애도되지 못한 잉여들은 살아남은 자들의 자아 속에 합체되어 우울증 주체를 구성한다.

위준에게는 이름도 성도 없는 소년이, 재호에게는 ‘죽어본’ 영택이 하중이들이, 노총각 김치수에게는 구천을 떠돌던 망자들이 모두 합체되어 있다.<sup>14)</sup> 작중인물은 시체가 살고 있는 지하납골당이며, 이들로 직조되는 텍스트는 죽음과 고통의 거미줄인 것이다.<sup>15)</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

13) 프로이트, 앞의 책, 367~370쪽;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109~110쪽.

14) 『씨앗불』에서 위준/진예의 관계는 공/사의 성역할분할을 재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위준은 부랑아, 부적응자인 타자이므로 젠더화된 남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재호를 비롯한 다른 남성인물도 타자화된 존재이지 젠더화된 남성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우울증 자체가 젠더화된 질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서의 남성인물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을 부각시킨 저자의 시선을 중요시하고자 한다.

중인물들이 이들의 합체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작중인물들은 애도를 통해 이들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도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을 합체한 우울증을 끝끝내 끌어안으려 한다. 이들에게 있어 애도와 우울증이란 벗어나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거주해야 하는 집인 셈이다. 바로 그것이 소설이 제시하는 우울증의 윤리이며 또 힘이다.

대상을 합체한 우울증의 방식으로 작중인물들은 삶을 견뎌나간다. 자아에 합체한 5·18 귀신들은 하나의 씨앗불로 남아 이글거리에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과거를 끌어안는 방식이며 피해자회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도 한다. 이들이 일상의 수습에 허덕이면 서도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울증 때문인 것이다.

이들은 이 우울증의 힘으로 새로운 저항을 준비한다. 미구에 그 씨앗불은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우울증에 흔히 동반되는 체념과 수동성의 혐의를 소설은 훌륭하게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울증은 자학과 자해라는 부정적 힘을 능동과 생성의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유효한 준거가 된다. 상실은 우울증을 통과하면서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작중인물들의 우울증은 공식적 애도에 반함으로써 슬픔이 정치화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슬픔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세간의 슬로건이야말로 기존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다.<sup>15)</sup> 이 지점에서 죽음의 기억을 끌어안고 놓

15)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검은 태양』, 동문선, 2004, 290쪽, 296쪽.

16)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로 구획하는 것이야말로 슬픔을 위계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슬픔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흔한 슬로건은 정치적 의도를 내장하고 있다. 슬픔의 조속한 삭제와 상실감의 재빠른 만회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질서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세계가 재빨리 복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세계가 질서정연했다는 환상을

지 않으려는 작중인물들의 우울증은 반담론의 정치적 가능성을 획득한다. 신고와 애도 그리고 전이로 이행되는 현실적 노선 바깥에서 슬픔의 상태에 머무름으로써 현재를 승인하지 않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다. 윤리에서 정치학으로 나아감으로써 공선옥 소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능동적 궤적을 탁월하게 떠내고 있는 것이다.

## 6. 맺음말

이 연구는 비체와 우울증 이론을 원용하여 5·18 소설을 해석함으로써 여성주체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 시도였다. 제 나라 국민들이 제 땅에서 제 나라 군인들에 의해 죽어간 압도적인 현실의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견지되는 젠더화의 현상을 중심으로 5·18 소설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남성소설들은 살아 있는 죽음에, 여성소설들은 죽어 있는 삶(*homo sacer*)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여성이 피해자와 타자화로 귀결되는 양상과 윤리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찬의 『광야』는 여성의 배제와 비가시화를 가장 투명하게 드러낸 소설이다. 5·18 당시를 구성하는 모든 대립관계와 이를 기술하는 서술자의 삼각도가 모두 남성으로만 축조되기 때문이다. 죽음으로써 삶과 사랑을 완성하는 동성 사회의 스크립 속에서 여성인물은 오직 어머니로만 환원될 뿐, 그 외의 모든 여성은 비가시화되어 버리고 만다.

---

강화하는 것이다. (임옥희, 『슈디스 버틀러 읽기』, 254~255쪽 참조)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의 기억을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는 작중인물들의 우울증은 정치적 힘을 획득한다.

임철우의 『봄날』은 비체를 매개로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진전된 젠더 의식을 보인다. 비체를 통해 자아의 경계를 이탈하여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여성인물을 부각시킴으로써 피해의 대상에서 치유의 주체로 이동하는 여성의 궤적을 탁월하게 띠낸다.

홍희담의 『깃발』은 5·18 이후 살아남은 자의 살아 있지 않는 삶에 주목한다. 그 해 5월의 기억을 봉합한 지금 여기의 삶을 결여태로 인식하고 그 결여의 자리를 우울증과 인간에 대한 예의로 보전한다. 의식적인 자기차별을 통해 상실한 대상과 합체하며 이를 기반으로 역사적 실천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암시한다.

공선옥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울증을 윤리와 만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간다. 신고와 애도, 그리고 전이로 5·18이 역사화되는 국면의 바깥에서 애도되지 못한 잉여들을 끌어안는 우울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이를 통해 슬픔의 위계화를 조장하고 이전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애도의 정치에 저항하며 현재를 승인하지 않는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다. 윤리에서 정치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울증의 가능성을 공선옥 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임철우, 『봄날』, 문학과지성사, 1998.  
 정찬, 『광야』, 문이당, 2002.  
 홍희담, 『깃발』, 창작과비평사, 2003.  
 공선옥, 『피어라 수선화』, 창작과비평사, 1994.

## 2. 참고논저

- 고갑희, 「시적 혁명과 경계선의 철학-줄리아 크리스테바」,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민음사, 2000.
- 박주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시각, 쟁점, 역사』, 창작과비평사, 2005.
- 성미라, 「배저키즘」, 여성문화이론연구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양상 연구」,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제1호, 2003.
- 임옥희, 「비체들의 유머」, 여성문화이론연구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다락방에서 타자를 만나다』, 여이연, 2005.
-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 조현순, 「애도와 우울증」, 여성문화이론연구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검은 태양』, 동문선, 2004.
- Freud, G., 박찬부 역, 「자아와 이드」, 프로이트, 윤희기 외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3.
- Kristeva, Julia,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 Butler, Judith,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2004.

**Abstract****Gender Politics of Abject and Melancholia in 'the May 18 Novels'**

Lee, Kyung

So called 'May 18 Novels' describe the May 18 Uprising for Democratization mostly along one of two orientations: aesthetic configuration or calling to testify that disaster. Critics and comments on them are not different from such trend. Nevertheless, the ways to deal with femininity don't vary with those orientations. Female characters in those novels are described as powerless victims and/or as figures that only reflect male characters' damages imposed by state.

This paper tries to reveal some possibilities of femininity, which is either left out or concealed behind masculinity to remain invisible in those novels. The theories on abject and melancholia can make good framework of reference for such aims of research, with which some salient roles of female characters can be explained across the distinctions of power/'others', active/passive, male/female. Melancholia can construe the subject by merging self to the object that they have been lost, while abject may become one that imperils divisions between subject/object. From this perspective, melancholia and abject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at both doubt and negate such boundaries.

Woman can get potential power as subject with return of abject and ethics of melancholia, which make the 'others' positive possibilities to

change and transform the subject.

In May 18 Novels, such abjects and melancholia appear themselves in genderized form. 『Bomnal(Spring Days)』 and 『Kwangya(the Wildness)』 where male characters are narrators, bring to their foci on immortal death. In contrast, 『Pieora Suseonwha (Blooming Narcissus)』, 『Sijuldeul(the Old Days)』, and 『Gitbal(the Flag)』 let female characters tell the stories of the living dead(*home sacer*).

**Key words** : May 18 Novels, abject, abjection, becoming abject, melancholia, mourning, living dead

■ 본 논문은 4월 30일 투고되어 5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